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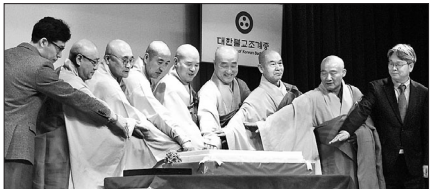
“불교 발전 위해서 노력합시다”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새해 시무식 잇달아

조계종 등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이 시무식을 열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5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신년하례식을 열고 2015년 을미년 종무행정의 시작을 알렸다. 자승 스님은 신년 인사를 통해 “문화의 조화로움과 삶의 지혜로움이 공존하는 이 시대 불교의 상징으로서, 조계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역량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도단체, 사회단체, 출가와 재가가 함께 모여, 종단과 불교가 나아가 길을 찾아내고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1월 6일 한국 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불기 2559년 신년하례 법회 및 시무식’



조계종 등 주요종단은 신년 시무식을 열고 2015년 종무행정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1월 5일 열린 조계종 시무식에서 신년 축하 떡 절단식 모습.

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다사다난 했지만 우리 종단은 위기를 극복해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다. 앞으로 정토사회 구현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월 3일 단양 구인사 2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었으며 진각종(총무원장 회정)도 3일 신년하례식을 봉행하고 한해를 시작했다.

신성민 기자

회당대종사 교육정신 스리랑카에 펼친다

진각종, 회당교육재단 설립... 첫 이사회 열여

JGO센터 설립을 통해 스리랑카 교육포교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진각종이 회당교육재단을 만들고 본격적인 교육봉사에 들어갔다.

진각종(총무원장 회정)은 구립 12일 스리랑카 국회 내 정부장관 집무실에서 회당교육재단 초대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구성도 함께 확정했다.

이사진은 한국측에서 총무원장 회정 정사(이사장), 현정원장 회성 정사, 교무국장 수각 정사가 스리랑카측에서는 시라 스님(위덕대 박사), 무오 JGO센터장, 위마라 아타라 스님, 위제곤 정부장관 보좌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명예이사에는 수메 다지자야세나 정부장관이 추대됐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회당교육재단 산하

기관으로 △JGO 유치원(영어, 스리랑카) △JGO 직업훈련원 △회당 영어 초등학교 △회당 영어 중학교 △회당 유치원교사 연

이사 한국 3명, 스리랑카 4명

유치원 · 중학교 · 연수원 등 6곳

재단 산하기관으로 확정해

현지 교육사업 활성화 기대

수원 △노노라가라 아동발달센터 등 총 6개를 확정했다.

실무자인 진각종 조성 국장은 회당교육재단 설립배경에 대해 “1999년 10월 첫 발

을 디딘 스리랑카 포교는 2000년 7월 네곰보 JGO센터 불사를 시작으로 화발해지기 시작했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미디어 스텝 컬리지 등 지속적인 교육 불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영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 국장은 “올 9월~10월 정도면 재단 등록 허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매년 3천만원 정도의 교육 기자재 후원 등 교육 포교에 활기를 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곰보에 자리한 회당교육재단은 앞으로 스리랑카 정부와 협력해 유아기 개발센터 건립, 편부·편모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지원, 직업교육 및 훈련 제공, 도서관 시설 운영 등의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는 이사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진각종이 스리랑카

에서 더 많은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정 정사는 “앞으로 이곳 회당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 스리랑카를 이끌어가는 큰 인재가 양성되기를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진각종은 2009년 7월 제364회 정기총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서 스리랑카에 (가칭)JGO회당국제학교 설립을 승인했으며, 2011년 8월에는 스리랑카 정부에 회당교육재단 설립을 신청했다. 이후 진기 2014년 8월 스리랑카 법무부와 교육부로부터 1차 재단설립 절차가 완료 됐고, 10월 법인 설립 운영 및 사업계획서가 스리랑카 국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김주원 기자 kimj217@hyunbul.com

비구니회 갈등, 끝이 안보인다

6일 총무원장 중재 결렬... 열린 모임 결의대회 준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을 위한 총무원장 중재마저도 결렬되며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 모임의 끝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린비구니 모임은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과 운영위원장 계환·기획실장 지홍·운영부위원장 묘주 스님 등 집행부 측 스님과 열린비구니모임 측 인대·재법·진명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중재로 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회칙 개정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중재 모임은 10여 분만에 결렬됐다. 명우 스님은 “입기가 얼마 남지 않

은 상황에서 40년간 선배들이 지켜온 회칙을 내 손으로 개정할 수 없다”면서 “내입기 중에는 절대로 회칙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자승 스님은 회의 개최의 의미가 없어졌음을 말하고 “더 이상 전국비구니회 문제에 중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의 중재마저 무산되면서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회 모임의 갈등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비구니모임은 1월 12일 대전에서 비공개 확대회의를 열고 집행부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동국대 총장 선출, 구성원들 ‘다른 목소리’

학생 “선출 연기해야” 원로교수 “선출 진행”

교육부의 ‘이상없음’ 회신에 따라 제18대 총장 선출을 위한 동국대 이사회가 1월 15일 예고된 가운데 학내 구성원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동국대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는 1월 6일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에 이사회 무기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들은 공문에서 △총장후보추천위

원회 임기 만료로 인한 추천후보의 자격 유지 문제 △조계종 외압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성립 등을 주장하며, 이사회 총장 선임 강행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국대 원로교수들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원·해주 스님을 비롯해 김용표 교수 등 동국대 교수 31인은 1월 8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총장 선출이 지연되면 심각한 학사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사회에 조속한 총장선출업무 마무리를 요청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 연수로 마음을 해독하세요

한국문화연수원 · 자비명상 30일부터 특화 프로그램 진행

6일 프로그램 개발 업무 협약 ‘화, 어쩌란 말이나’ 첫 진행 1월 30일~2월 1일 선착순 모집

한국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갈등 지수를 가졌다. 그만큼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다. 울컥 솟아오르는 화와 대인 관계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된다.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과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은 1월 6일 ‘불교연수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연수 프로그램으로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2015 마음챙김 캠프’가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화! 어쩌란 말이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마가 스님을 비롯한 문진건 캘리포니아대학원 심리학 교수, 한영용 음식전문가 등이 건강·심리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화’ 지수를 체크하고 해결 방안을 지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기·타인 긍정명상 △노노조절 △화 테스트 △다스림 명상과 소리 지르기, 놀기 등을 통해 내면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원장 구과)과 (사)자비명상(이사장 마가)은 1월 6일 ‘불교연수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 화를 끄집어내 폭발시키는 ‘활화산’ 프로그램, 유서 작성과 죽기 전까지 자신의 원력을 세우는 ‘구름이 흩어지듯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전문 강사들이 개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향후 ‘2015 마음챙김 캠프’는 매달 현대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월에는 불안을 주제로 캠프가 열리며 3월은 갈등, 4월은 돈, 5월은 상처, 6월은 다이어트, 7월은 죽음, 8월은 자녀, 9월은 부부, 10월은 퇴직, 11월은 사랑, 12월 꿈을 주제로 이뤄진다.

‘2015 마음챙김 캠프’ 1차 접수마감은 오는 1월 26일까지이고 참가 신청 문의는 자비명상(02-3666-0260)과 한국문화연수원(041-841-5050)으로 하면 된다. 참

가자는 선착순 100명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50만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연수원은 “자비명상과 한국문화연수원은 향후 불교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업과 공공서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적 가르침으로 현대인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문화연수원은 2015년도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주제로 참선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유쾌한 명상캠프 프로그램으로 ‘다(茶)락(樂)선(禪) 힐링타임’, ‘스트레스관리 마인드케어 명상’, ‘스트레스 해소·자존감 회복을 위한 기업연수 프로그램인 ‘기동산장(氣通山場)’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불교 민사조정위 참여 서울 고등법원장 등 요구 1월 7일 자승 스님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법원장들은 불교계 참여가 전무한 민사조정위원회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의 합의조정을 민사조정위원회에는 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조병현 법원장은 “불교 신자간의 민사상 다툼이 있을 경우 불교계가 나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불교가 갈등과 다툼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불교계도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예방에 앞서 조병현 법원장과 이성호 법원장은 대응전을 둘러 부처님전에 참배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자승 스님과 조병현, 이성호 법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승려복지제도 시행 공고

지원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신고를 필한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모든 스님.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종류

- 입원 진료비 : 2015년 1월부터 입원진료비를 지원함(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이외’ 비용 제외). 모든 의료기관, 서울 및 수도권(인천·경기도)은 동국대 산하병원 또는 종단·교구와 협약한 병원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2015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재료료를 지원함. 종단 지정 요양병원 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종단이 인정하는 경우 2015년 4월부터 1인당 월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함.
- 국민연금보험료 : 2017년 1월부터 1인당 월36,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함(2018년 50%, 2019년부터 100%).

비용의 신청

1. 입원진료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에 신청함.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은 종단에 신청함.
3. 국민연금보험료는 재적 교구에 신청함(2017년부터 시행).

비용 부담 및 정산

1. 모든 지원비는 종단 50%, 각 교구가 50% 부담함.
2.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이 먼저 부담 후 신청인 재적 교구와 정산함.
3.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종단이 인정하는 경우 종단이 먼저 부담 후 신청인 재적 교구와 정산함.
4. 국민연금보험료는 각 교구가 먼저 부담 후 종단과 정산함.

문의

-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 27, 팩스 720-3302 (110-170)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종 승려복지회
- 기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59(2015)년 1월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